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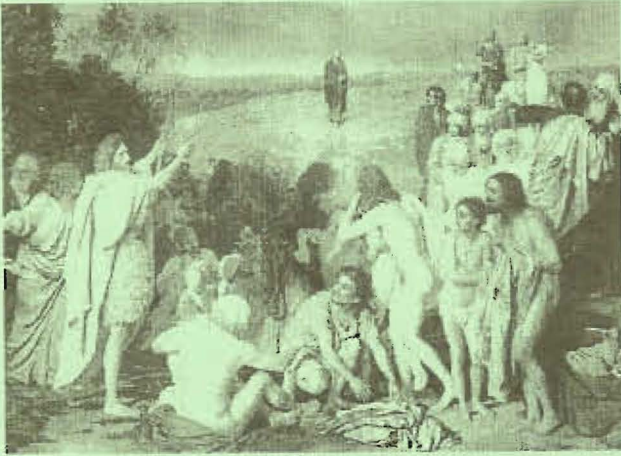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연중 제26주일
제31권 44호(가혜) 2011.9.25

[묵상]



군중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19c, 알렉산드르 이바노프, 트레치야코브 미술관, 모스크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게 이릅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큰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자신이 행한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둘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 이는
큰 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고
행복하게 아버지의 일을 거들겠습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모든 것이
저희의 모든 것과 일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함이 저희의 구원이오니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이끄시어
당신을 따르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 아버지! 당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이 저희의 행복이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이덕철 루카, 여준동 베드로, 김종호
특전미사	(생) 유지숙 그레이스 & 제르미 마티네스,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가정, 성유진 로렌스, 에블린 페리아
주 일	(연) 조정림 요셉,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오진 베드로, 정원교 요한, 정순봉 올리아나, 신임순 안나, 최건 바실리오,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례 마르타, 김완태 다미아노, 김애자 테레사
낮 미사	(생) 영화 가보라 프란체스카, 이형삼 요셉, 고동욱 루카 & 주실 실비아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대진희 가정, 박상신 베드로 & 김복순 막달레나, 최양숙 안젤라 & 최상만 사비노 가정, 문갑티스타 수녀, 제33차 남가주여성꾸르실로 참가자 & 봉사자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Ezekiel) 18,25-28

화답송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짧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1-11<또는 2,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마태오(Matthew) 21,28-32

영성제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8	217	239
봉헌	I Follow You	264	267
성체	286	295	287
파견	345	252	34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서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문헌들인 의제 개요(Lineamenta)와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토론 전 보고서(Relationes ante Disceptationem)와 토론 후 보고서(Relationes post Disceptationem), 회의장에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된 문헌들, 소그룹 토론의 보고들, 하느님 백성을 향한 폐막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부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긴 구체적인 건의안을 고려하여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작업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는 쇄신의 원천으로서 재발견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지적하려 합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이 점점 더 온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2. 무엇보다 먼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체험했던 주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과 함께 요한 1서의 말씀들로 모든 신자들을 향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요한 1,2-3). 이 사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 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요한 1,1 참조). 생명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선물을 선포해야 합니다. 케리그마적인 관점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회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저는 모든 신자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만남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선포자들이 되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선물이 - 친교가- 온 세상에 더욱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실상 하느님의 생명에, 사랑의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요한 1,4 참조).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데에서 생겨나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선물이며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동안 종교로 귀의해 세례를 받고, 회개의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는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집행이 끝난 후 그를 신앙으로 이끌어준 선교사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시간에 교수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세 번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와!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네!” 두 번째, “어떻게 저 사람도 천국에 와 있지?” 세 번째, “어? 천국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나 창녀들의 죄를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인 척하는 대사제들과 원로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종교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천시와 냉대를 받던 세리나 창녀들은 늘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관장 자캐오와 세리 마태오,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속적으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부단히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삶입니다. 또한 회개는 평생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불만과 불평이 아닌 칭찬과 평화를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오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 폐막

-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1일부터 강당에서 전시해온 종합예술대전이 오늘 주일(25일) 막을 내립니다. 본 예술대전에는 그동안 백삼위 교우들의 정성이 담긴 수십점의 아름다운 작품들(유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사진, 꽃꽂이, 서예, 자수, 알공예, 도자기, 켈트)이 소개됐는데, 전시장을 찾은 내외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출품한 교우들은 물론 행사를 진행해온 예술대전준비위원회(고문: 김선제 바오로)께 감사드립니다.

◆ 새 예비자를 봉헌합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의 해, 본당의 날(9월18일)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한 12명의 형제자매들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새로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 환영식: 2011년 10월3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교리실
- 세례식: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엽회, 요셉회, 대건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에 이어 이번 주일은 레지오마리에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9월25일: 레지오마리에 ▶ 10월2일: 빈첸시오
- ▶ 10월9일: 베론청년회 ▶ 10월16일: 성령기도회

◆ 남가주 제33차 여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 울뜨레아

- 일시: 오늘 주일(25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강자 4명: 금유미 크레센시아,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 스텔라, 김명재 아가다
- 봉사자: 엄혜은 도로테아, 권순길 체칠리아, 김미현 크리스틴
- 본당 울뜨레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미사

- 일시: 9월27일(화) 오후 7시30분
- 리셉션: 미사후 강당
- 명예회원과 일반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310)283-5879

◆ 소년소녀 복사단 월례모임

- 일시: 10월1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성당
- 문의: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작년 9월에 창단된 백삼위 주일학교 소년 레지오 '그리스도의 어머니' 프레스디움(pr.)에서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낙기 바오로 부단장 ☎(310)709-3343

◆ 토요일특전(청년미사)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 자격: 사우스베이 거주자로 신앙 깊은 청년 피아노반주자
- 문의: 김기석 바오로 배론청년회 밴드부장 ☎(310)713-3329

◆ 본당의 날 기념 친환경 녹색 장바구니 전신자에 선물

- 아직 받지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25일(주일): P.V. 1반(불고기덮밥 \$3)
- 10월2일(주일): 소공동체(떡, 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정희 박영룡 육근주 최이원 황지영	강태홍 남성철 박정희 이경용 최현찬 신영웨버	고천용 문향업 박현주 이우성 최희숙 한길선례	구자운 민형기 신순철 이인석 주서희	김영경 박근식 안재만 정명모 한혁수	김정엽 박봉성 엄영희 최원석 황인종	성전헌금	강태홍 민형기 안재만 최원석 한길선례	고천용 박봉성 이경용 최이원	구자운 박영룡 이우성 최현찬	김정엽 박정희 이인석 한혁수	남성철 박현주 이일길 황인종	문향업 신순철 정명모 황지영		
	합계 : \$5,725							합계 : \$3,125							
미사헌금 : \$3,109							감사헌금 : 박이레네							주보광고후원 : \$250	

◆ 청소년분과 연합 모임

본당 사목회 청소년분과에서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 그리고 청년회 등 함께 모이는 연합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는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0월2일(주일) 오후 4시~10시
- 장소 : 29428 Whitley Collins Dr. R.P.V., CA 90275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청소년 분과장 ☎(310)408-1443

◆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자 관련 내용 수록 반대법안 서명

캘리포니아주 초중고교 교과서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호감있게 넣는 주상원법안 SB 48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자녀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연합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로 유권자등록을 하신 성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명후 유권자등록을 해도 됩니다.)

- 서명일시 : 이번주일 특전미사와 주일미사 후
- 서명용지 : 성당 현관에 비치(1장에 2명까지 서명 가능)
- 서명자격 : 만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을 한 분
- 문의 : 새라 김 sarahspring2009@gmail.com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신앙인은 모든 매체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필터'를 끼워서 영화를 감상한다면 말입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영화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0월 일정 : 두번째 토요일(8일) 오전 10시~2시
- 상영영화 : 선물(The Gift : 이정재, 이영애 주연)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성모기사회 북미주 지도)
- 피정비 : \$20(차와 김밥 제공) * 문의 : ☎(310)324-8159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2

더욱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22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자 25세 이상 미혼 가톨릭신자
여자 23세 이상 미혼 가톨릭 신자
- 장소 : 성 토마스성당(412 N.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
- 신청마감 : 10월9일(주일) 선착순 남녀각각 30명
- 문의 : 김민정 첼리나 ☎(213)247-4341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노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2(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강인모 태오도시오 780-0369 9/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진영태 요한 970-2037 9/18(주일) 오후 4시30분 델슨팍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명순 안나 720-2876 9/16(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정숙 수산나 320-0855	송루카 송바로 320-0855 9/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경수 헬레나 634-6923 9/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송미카엘 540-9032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로 257-8416 9/9(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710-8078 9/10(토) 오수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은주 세실리아 377-6328 9/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9/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베스 617-3568 9/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9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와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시복 시성을 기원하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의 손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백여 년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며 믿음을 지킨 빛나는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 신자의 씨앗’이라고 한 라틴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대로 한국 천주교회는 오늘날까지 선조 순교자들의 피와 땀의 은덕으로 성장과 번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들의 은덕을 기억하는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여 순교자들을 추모하며 기리는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103위 순교 성인은 1839년의 기해박해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이고,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의 순교자들과 첫 번째 큰 박해인 신유박해(1801년)의 순교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아직 시성의 영예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시복 시성 추진은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모시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3위 순교자의 시성식을 치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20년에 걸쳐 시복 시성 청원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2009년 6월에 125위 ‘하느님의 종’(순교자 124분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들의 시복 조사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복 시성 청원의 준비와 절차가 많고 매우 엄격한 관계로 긴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종’ 125위의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시복 청원 절차는 끝나고 교황청 시성성의 심의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교황청 시성성의 심의 절차는, 한국 천주교회가 제출한 예비 심사 조서에 대한 교회법적 검토, 시성성의 역사위원회와 신학위원회의 내용 심의가 있는 후, 관련 추기경과 주교들의 회의를 거쳐서 교황님의 시복 교령이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성성 차원의 이 마지막 단계의 심의와 교황님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즉, 시성성 차원의 심의가 순조로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느님의 종’ 125위의 시복 교령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으로는, 머지않아 시복 시성의 영예를 입게 될 ‘하느님의 종’들의 묘소와 유적지들을 잘 가꾸고 순례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종’들이 복자와 성인이 될 때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일 저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식에 참석차 로마에 간 기회에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님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때에 추기경님께서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 청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복 시성을 간절히 바라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원의의 표출이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순교자들의 순교 명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기경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적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신자들은 우리 순교자들의 순교 사실을 굳게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빨리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시복 시성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금년 ‘순교자 성월’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시복 시성 청원 기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125위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 시성의 여명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 기도운동이야말로 추기경님이 말씀하시는 ‘아래로부터의 시복 시성 운동’입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성직자 영입과 복음 전파에 힘쓴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들의 놀라운 전통이 이번 125위 ‘하느님의 종’ 시복 시성 추진 과정에서도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여겨져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신자 여러분께서 이 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25위 시복 시성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애 103위 순교 성인들의 전구로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순교자 성월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